

또래관계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박 연 정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래관계는 Ruman(1985)이 제작한 사회적 관계망 척도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한종혜(1996)의 척도를 이용하여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였다. 또래괴롭힘은 Crick과 Grotpeter(1996)가 제작한 사회경험 질문지를 수정·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임지영(1998)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개 초등학교의 4학년, 6학년 아동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명백한 괴롭힘 요인에 있어 성차와 연령차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은 각 하위요인별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요인과 친밀 요인, 우의 요인은 또래괴롭힘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립 요인과 처벌/주도권 요인은 또래괴롭힘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는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요인과 처벌/주도권 요인이,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또래관계, 또래괴롭힘, 아동의 성과 연령

1) 교신저자: 박연정,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E-mail: yj-park@korea.ac.kr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I. 서 론

아동의 사회적 세계는 부모, 형제, 교사, 또래 등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부모, 형제관계와 같은 가족중심의 관계로부터 교사, 또래관계와 같은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아동 중기에 들어서면서 또래관계는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한 관계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 중기를 기점으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도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Ellis와 동료들(1981)에 의하면 2-12세 사이의 아동들은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Grusec과 Lytton(1988)에 따르면 또래와 보내는 시간은 보통 학령 전기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1세 정도가 되면 아동이 참여하는 사회 활동의 5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송미선(1995)에 의하면 유아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아동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또래가 또래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지영, 1997, 재인용).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기혼 취업 여성수의 증가와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또래와 보내는 시간의 양과 또래간 영향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래관계에 초점을 맞춰 아동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Newcomb(1982)에 의하면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는 상호관계로서, 상호의존성, 자발성, 존중심, 친밀감뿐 아니라 어떠한 혜택을 친구와 함께 나누려는 시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Hartup(1989)에 따르면 애정이나 관심, 흥미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며 독특한 애착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최은영, 1995, 재인용). 또한 Howes(1983)에 의하면 상호작용을 위한 선호, 긍정적 애착과 공유, 또래간 놀이에 필요한 기술 등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구 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또래집단 내 상호성은 또래관계의 대표적 특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한편 또래관계는 성인과의 관계가 위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수평적인 관계로서 평등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아동은 이를 통해 자유롭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즉, 또래간 지지체계는 부모-자녀관계나 교사-학생관계에서 나타나는 틀과는 다른 양상을 띠며 대등한 형상을 유지한다.

아동은 또래집단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의 모델이 되고, 비교준거 및 강화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김경희, 1986). 또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아동이 쉽게 배우게 되는 긍정적 행동 특성에는 성유형화 된 태도 및 행동(Ruble, Balaban, & Cooper, 1981)과 성취 행동(Sagotsky & Lepper, 1982), 도덕적 판단(Kruger, 1992) 등이 있다. 한편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을 하고 대립도 경험하며(Cole & Cole, 1993), 또래집단의 가치나 행동 유형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단에서 거부될 수 있고(이미순, 1995), 거부된 비인기 아동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Parker & Asher, 1987). 즉, 또래집단 내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상호교환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교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은 또래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결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래간 부정적 상호작용의 결과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부적절한 또래관계는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또래괴롭힘은 다양한 공격성의 개념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Smith(1991)에 의하면 또래괴롭힘은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입히는 것으로 가해자는 한 명 혹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집단일 수 있다고 하며, Olweus(1993)에 따르면 공격성으로 대표되는 괴롭힘(bullying)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아동들이 부정적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또래괴롭힘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상해를 입히는 자는 가해자로 그리고 상해를 입는 자는 피해자로 명명되어질 수 있다.

오늘날 또래괴롭힘은 왕따 혹은 집단따돌림, 또래따돌림, 집단괴롭힘이라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다. 서구의 'bullying'이란 단어 또한 국내에서는 또래괴롭힘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김예성, 2000; 박미연, 2000), 한편 이는 집단따돌림, 또래따돌림이란 용어로도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심선보, 2000; 최옥임, 2001). 이처럼 또래괴롭힘과 혼용되는 용어가 다양하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일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이미 서구에서는 1970년대 초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스웨덴, 핀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임지영, 1998).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에 학교 내 집단따돌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또래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또래괴롭힘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또

래집단 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하는데, 다양한 부적응 지표 중에서도 외로움과 불안을 또래괴롭힘과 관련지은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 대부분은 외로움(Boulton & Underwood, 1992; Crick & Grotpeter, 1996; Olweus, 1993)과 불안(Crick & Grotpeter, 1996; See, 1994)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위축되고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최진희, 2000; Kochenderfer, Ladd, & Coleman, 1997). 이처럼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며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발달에 있어 부정적 측면인 또래괴롭힘이 또래관계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며 또래관계의 어떤 측면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또래괴롭힘은 그 유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성차와 연령차를 본 연구들은 다소 많은 편이나, 이는 흔히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Crick과 Grotpeter(1996)에 의해 제시된 또래괴롭힘은 이런 명백한 괴롭힘뿐 아니라 관계상에서 나타나는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와 관련된 괴롭힘을 포함하며 광의의 또래괴롭힘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공격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신체적·언어적으로 남에게 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에 초점을 둬으로써 남아들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여아들의 또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공격 행동인 관계 측면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김애숙, 1993; 이양순, 1998; 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4). 그런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직접적인 공격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공격 피해를 당하기 쉽다는 선행 연구들(Cairns, Cairns, Neckerman, & Ferguson, 1989; Crick & Grotpeter, 1995; Lagerspetz, Bjorkvist, & Peltonen, 1988)에 비춰볼 때,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상의 괴롭힘은 여아에게 좀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의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가 오늘날 계속해서 행해지고는 있으나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Crick과 Grotpeter (1996)에 의해 제시된 또래괴롭힘 유형을 중심으로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또래괴롭힘을 살펴보는 데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은 또래집단에서의 아동의 수용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회측정 기법(sociometric techniques)인 교우관계측정도(sociogram)를 사용하고 있다. 교우관계측정도는 아동에게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또래들을 지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친구로 함께 놀고 싶은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Terry & Coie, 1991). 이 방법에 따르면 아동은 인기 아동, 거부된 아동, 무관심 아동, 인기·거부가 혼합된 아동으로 나뉘며, 거부된 아동과 무관심 아동은 또래수용이 낮은 아동을 말한다. 이처럼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또래관계를 교우관계측정도에 따라 또래수용·거부의 차원에서 인기·비인기 집단으로 나뉘어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이차원적인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고 또래괴롭힘을 살펴본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중혜(1996)의 또래관계 척도는 또래간 관계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또래관계를 기존의 수용·거부 혹

은 인기·비인기로 양분하여 보는 획일적 이분법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의 또래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이분법적 분할을 탈피하여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또래관계를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눈 한중혜(1996)의 척도를 중심으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아동의 성과 연령 및 또래관계 내 하위요인(사회적 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은 또래괴롭힘을 얼마나 잘 예측해 줄 수 있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3개 구(강남구, 광진구, 성동구)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의 4학년, 6학년 아동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또래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생각되었고,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신뢰성 있게 보고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조작기(7-12세)에 들어서면서 아동은 자아중심성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보이는 규칙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 즉, 이 시기의 아동은 타인에 대한 지각이 가능해지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57)*

변 인	구 분	대상자의 수	백분율
아동의 성별	남	177	49.6
	여	180	50.4
아동의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69	47.3
	초등학교 6학년	188	52.7
출생순위	외동이	29	8.1
	첫째	139	38.9
	둘째 이후	165	46.2
아버지의 연령	30 39세	49	13.7
	40 49세	285	79.8
	50 59세	15	4.2
	60세 이상	1	.3
어머니의 연령	29세 이하	2	.6
	30 39세	156	43.7
	40 49세	191	53.5
	50 59세	2	.6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면서 또래관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제도상 8세가 아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고려할 경우 5학년은 우리나라 나이로 11, 12세의 두 연령이 공존하기에 연령차를 두고자 5학년을 제외한 4학년,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남아는 177명으로 49.6%, 여아는 180명으로 50.4%였으며, 4학년 아동은 169명으로 47.3%, 6학년 아동은 188명으로 52.7%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도구

또래관계

Furman(1985)이 제작한 사회적 관계망 척도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한종혜(1996)의 척도를 이용하여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종혜(1996)가 실시한 요인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 요인(17문항), 처벌/주도권 요인(6문항), 친밀 요인(4문항), 우의 요인(3문항), 대립 요인(3문항)으로 나뉘어진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 척도의 하위요인별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요인은 결속력이 높으며, 애정이 많고, 서로 만족하며, 상대를 인정해주고, 잘 보살펴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처벌/주도권 요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벌을 주거나 훈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결정해버리는 관계를 의미한다. 친밀 요인은 서로 생각이나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우의 요인은 같이 놀고, 재미있는 곳에도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는 관계를 의미한다. 끝으로 대립 요인은 서로 뜻이 잘 맞지 않아 화를 내고 다투거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투거나 논쟁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한중혜(1996)가 보고한 또래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척도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59.3%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사회적 지지 요인이 Cronbach $\alpha = .95$, 처벌/주도권 요인이 Cronbach $\alpha = .53$, 친밀 요인이 Cronbach $\alpha = .76$, 우의 요인이 Cronbach $\alpha = .72$, 대립 요인이 Cronbach $\alpha = .58$ 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게 나온 하위요인은 문항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래괴롭힘

Crick과 Grotpeter(1996)가 제작한 사회경험 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SEQ)를 수정·변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임지영(1998)의 척도를 이용하여 또래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또래괴롭힘을 측정하였다.

사회경험 질문지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지영(1998)이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한 문항을 제외한 1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4문항), 명백한 괴롭힘 요인(5문항), 친사회적 행동 요인(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 명백한 괴롭힘 요인과는 달리 긍정적 문항으로 진술된 친사회적 행동 요인의 경우는 역채점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점수를 내고 이를 또래괴롭힘 점수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의 전체 개념에 근거하여 ‘친사회적 행동 요인’은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으로 용어를 바꿔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경험 질문지의 하위요인별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관계상 괴롭힘 요인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괴롭힘 요인은 의도적인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또는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 또래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적·정서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지영(1998)의 연구에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하위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60.6%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관계상 괴롭힘 요인이 Cronbach $\alpha = .80$, 명백한 괴롭힘 요인이 Cronbach $\alpha = .7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이 Cronbach $\alpha = .85$ 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서울시내 3개 구(서초구, 성북구, 중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남녀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2002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가 바뀌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먹지만 우리나라 교육 실정상 학년은 3월에 바뀌므로 본조사 때와 연령을 맞추기 위하여 3학년,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를 가지고 2002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서울시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담임선생님께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아동들이 교실에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으며, 배부한 질문지 540부 중 514부가 회수되었고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자료를 제외한 35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아동이 지각한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성과 연령(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들은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평균점수 2.55)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평균점수 1.63), 명백한 괴롭힘 요인(평균점수 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가 각기 다르므로 하위요인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표 2.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357)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남(N = 177)				여(N = 180)			
	4학년 (N = 78)		6학년 (N = 99)		4학년 (N = 91)		6학년 (N = 89)	
	M	SD	M	SD	M	SD	M	SD
관계상의 괴롭힘	1.73	.88	1.69	.81	1.58	.77	1.53	.73
명백한 괴롭힘	1.85	.74	1.63	.73	1.50	.60	1.23	.45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2.81	1.00	2.68	.87	2.43	1.04	2.26	.85
전 체	2.16	.65	2.02	.62	1.86	.55	1.69	.53

성과 연령(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

표 2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아동의 성과 연령(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 전체와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또래괴롭힘 전체는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명백한 괴롭힘 요인의 경우 성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

서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의 경우는 성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또래괴롭힘 전체와 또래괴롭힘의 각 하위요인에 있어서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또래괴롭힘 전체와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명백한 괴롭힘 요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아 집단의 평균점수가 여아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표 3. 성과 연령(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이원변량분석

(N = 357)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관계상의 괴롭힘	성별(A)	1	33.46	33.46	3.29
	연령(B)	1	3.08	3.08	.30
	A×B	1	6.043E-03	6.043E-03	.00
	오차	353	3587.35	10.16	
	전체	356	3622.88		
명백한 괴롭힘	성별(A)	1	315.57	315.57	30.83***
	연령(B)	1	127.38	127.38	12.45***
	A×B	1	1.43	1.43	.14
	오차	353	3612.98	10.24	
	전체	356	4036.64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성별(A)	1	350.62	350.62	15.86***
	연령(B)	1	51.20	51.20	2.32
	A×B	1	.72	.72	.03
	오차	353	7804.03	22.11	
	전체	356	8193.70		
전 체	성별(A)	1	1787.01	1787.01	26.48***
	연령(B)	1	407.96	407.96	6.05*
	A×B	1	4.50	4.50	.07
	오차	353	23821.22	67.48	
	전체	356	25934.66		

* $p < .05$ *** $p < .001$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있었으며,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명백한 괴롭힘 요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또래괴롭힘 전체와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명백한 괴롭힘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4학년 아동 집단의 평균점수가 6학년 아동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연령이 어린 4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특히 명백한 괴롭힘 요인에 있어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래관계의 각 하위요인과 또래괴롭힘의 제 하위요인들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모두 또래괴롭힘 전체와 유의

한 상관이 있었다. 즉,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 요인($r = -.66, p < .01$), 친밀 요인($r = -.45, p < .01$), 우의 요인($r = -.43, p < .01$)은 또래괴롭힘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또래관계의 대립 요인($r = .38, p < .01$), 처벌/주도권 요인($r = .13, p < .05$)은 또래괴롭힘 전체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은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 요인($r = -.41, p < .01$), 우의 요인($r = -.31, p < .01$), 친밀 요인($r = -.19, p < .01$)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립 요인($r = .31, p < .01$), 처벌/주도권 요인($r = .19,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명백한 괴롭힘 요인도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 요인($r = -.32, p < .01$), 우의 요인($r = -.20, p < .01$), 친밀 요인($r = -.18, p < .01$)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또래관계의 대립 요인($r = .32, p < .01$), 처벌/주도권 요인($r = .22, p < .01$)에 있어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서는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 요인($r = -.68, p < .01$), 친밀 요인($r = -.54, p < .01$), 우의 요인($r = -.42, p < .01$)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또래관계의 대립 요인($r = .25,$

표 4.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과의 상관관계

(N = 357)

	또 래 관 계				
	사회적 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
관계상의 괴롭힘	-.41**	.19**	-.19**	-.31**	.31**
명백한 괴롭힘	-.32**	.22**	-.18**	-.20**	.32**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68**	-.06	-.54**	-.42**	.25**
또래괴롭힘 전체	-.66**	.13*	-.45**	-.43**	.38**

* $p < .05$ ** $p < .01$

$p < .01$)만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성과 연령(학년) 및 또래관계 하위요인들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아동의 성과 연령(학년) 및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하위요인들이 또래괴롭힘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별과 학년은 가변수(dummy variables)화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우선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6으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1에 가깝고 분산확대인자(VIF)가 2보다 작아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또래괴롭힘 전체에 대한 아동의 성, 연령 및 또래관계의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의 또래괴롭힘 전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 또래관계의 각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요인과 처벌/주도권 요인, 그리고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 요인($\beta = -.682, p < .001$)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또래관계의 처벌/주도권 요인($\beta = .216, p < .001$), 아동의

연령($\beta = -.119, p < .01$) 순으로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 변인들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하여 49.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하여 결속력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처벌과 지시를 더 많이 할수록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성과 연령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

우선, 아동의 성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경향을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전체에 있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간 공격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들(김애숙, 1993; 김예성, 2000; 이양순, 1998; 임지영, 1998; Block, 1983; Boulton & Underwood, 1992; Crick & Grotpeter, 1996; Lane, 1989; Olweus, 1994)과 일치한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 여아가 애정과 돌봄이 좀더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기에 남아에 비해 괴롭힘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령

표 5. 또래괴롭힘에 대한 성, 연령(학년) 및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N = 357)

예언변인	B	β	R	R^2	ΔR^2	F
사회적 지지	-.419	-.682	.662	.438	.438	113.88***
처벌/주도권	.552	.216	.691	.478	.040	
연령	-2.029	-.119	.701	.492	.014	

*** $p < .001$

기 아동은 이성보다는 동성과의 친구관계를 선호하는데, 남아들간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롭힘은 남아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표출하는 행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성차를 살펴볼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수령(2001)과 임지영(1998)의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때리기, 밀기, 언어적 위협과 같은 직접적 공격 행동이 남아에게 있어 중요한 사회적 목적에 해를 끼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경희, 1998; Rigby & See, 1991; See, 1994)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덜 경험한다는 결과는 강수령(2001), 권연희(1996), 임지영(1998),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남아가 여아에 비해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좀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더 많이 당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아의 경우 정서적 교류나 감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표현적 욕구를 또래관계를 통해 충족시키는데 비해, 남아의 경우 표현적 욕구 충족보다는 도구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고 또래관계를 형성하므로 또래간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면 표현적 방법을 통한 합리적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격 행동이 나타나고 또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경향을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전체에 있어 4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명백한 괴롭힘에 있어서도 4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또래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강수령, 2001; 이영미, 1990; 임지영, 1998; Olweus, 1994; Whitney & Smith, 1993)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또래괴롭힘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명백한 괴롭힘에 있어서 연령차를 본 강수령(2001)과 임지영(1998)의 연구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2·6학년(11.6%)이 7·9학년(5.4%)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Olweus (1991)의 연구결과와, 학령 전기의 아동들이 학령기의 아동들보다 또래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Baulton과 Underwood(199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에 있어서의 이러한 연령간 차이, 즉 연령 증가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감소는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혼자가 아닌 공동체 생활을 인식하게 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또래괴롭힘이 덜 나타나고 또한 이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은 탈중심화되면서 타인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선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명백한 괴롭힘은 외현적으로 식별하기 용이하므로 연령 증가에 따라 이에 노출될 확률이 점차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으로 대두되는 명백한 괴롭힘은 보편적인 공격 개념으로 간주되기에 누구나 부정적 행동으로 여기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행동은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

서는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괴롭힘을 살펴본 결과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Hoover와 Hazler (199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에 있어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은 명백한 괴롭힘 요인과는 달리 간접적인 성향을 띠는 요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히기보다는 관계상에서 인지적 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격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간에는 인지능력의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에 관계상의 괴롭힘에 있어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Green과 Schneider(1974)에 의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기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10세 경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10세 이후에는 안정적 속성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에 근거하여 볼 때 또래괴롭힘의 하위 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른 안정성이 존재하므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 유사한 단계를 거치고 있기에 또래괴롭힘의 한 요인인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서 연령차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래괴롭힘에 있어서의 연령차는 연구 대상의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Boulton과 Underwood(1992)의 연구에서처럼 학령 전기와 학령기의 아동을 비교한 경우는 학령 전기 아동에게 있어 또래괴롭힘이 더 많이 관찰되고, Hoover와 Hazler(1991)의 연구에서처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또래괴롭힘은 단지 연령차만을 가지고 그 경향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의 각 하위요인과 또래괴롭힘 전체의 부적 상관 정도는 사회적 지지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밀 요인, 우의 요인 순이었다. 반면 또래관계의 하위요인과 또래괴롭힘 전체의 정적 상관 정도는 대립 요인이 처벌/주도권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의 각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과 명백한 괴롭힘 요인은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 요인, 우의 요인, 친밀 요인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대립 요인, 처벌/주도권 요인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은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 요인, 친밀 요인, 우의 요인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대립 요인만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괴롭힘에 대해 살펴본 조샘이(2001)의 연구에서 사회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친구의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언어적 괴롭힘과 물리적 괴롭힘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 비인기 아동 집단이 또래괴롭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들(Coie, Dodge, & Coppotelli, 1982; Newcomb, Bukowski, & Pattee, 1993)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이 또래집단 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친구와 친숙하고 다정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또래간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이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또래괴롭힘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중기에 접어들어 또래간 접촉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은 또래로부터 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지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에 또래괴롭힘과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또래관계에서 또래간 대립이 많을수록, 그리고 별을 주거나 지시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를 사회적 능력과 살펴본 임정하(1996)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요인과 친밀 요인, 우의 요인이 사회적 능력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과 또래괴롭힘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연구(강수령, 2001)에 근거하여, 사회적 능력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또래괴롭힘을 놓고 살펴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요인과 친밀 요인, 우의 요인이 또래괴롭힘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는 임정하(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또래간 서로 인정해주며 결속력이 높은 사회적 지지관계는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부적으로 작용하여 아동발달에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친숙한 관계도 아동이 또래괴롭힘에 덜 노출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또래관계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대립상황에 놓이거나 혼계를 하고 자신의 결정만을 고집하는 경우는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의 성과 연령(학년) 및 또래관계 하위요인들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으로는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요인과 처벌/주도권 요인이 있었고, 아동의 연령도 또래괴롭힘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또래간 결속력이 약하여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래관계에서 처벌/주도권을 많이 행사하는 경우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또래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혜진(2001)의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성이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인 관계상의 괴롭힘 요인과 명백한 괴롭힘 요인,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요인에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샘이(2001)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물리적 괴롭힘의 피해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또래괴롭힘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또래집단 내 상호 지지가 아동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은 또래간 지지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자주 나타나므로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도와줄 경우 또래괴롭힘은 덜 발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를 사회적 능력과 살펴본 임정하(1996)의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 요인만이 사회적 능력 전체를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다. 즉, 임정하(1996)의 연구에서의 사회적 능력과 본 연구에서의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발달선상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또래관계의 다른 요인들보다도 사회적 지지 요인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또래 관계에 있어 또래간 지지는 아동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행동 특성을 낳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거부된 아동의 경우 부주의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들(Coie, Dodge, & Coppotelli, 1982; Newcomb, Bukowski, & Pattee, 1993)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은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또래관계가 처벌 위주의 관계라든가 한 쪽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관계에서 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또래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간다면 또래괴롭힘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김예성(200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은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수령(2001)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또래괴롭힘의 하위요인 중 명백한 괴롭힘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서 바람직한 행동은 선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으며 부정적 행동 유형인 또래괴롭힘은 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와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교육 실정상

학년이 바뀌는 3월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차후 안정된 또래관계가 형성된 후의 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3월 중순 이후로 조사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개인마다 그룹을 형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또래관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실시된 조사와는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는 또래관계가 안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아동이 지각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였다. 이는 실제 일어나는 또래간 상호작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척도와 타인에 의해 지각되는 척도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관계는 연령 혹은 성숙수준이 유사한 사람들간의 관계를 일컫는 말로, 단지 동일 연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본 연구는 학교 내 학급이라는 공간 내에서 실시되었으므로 또래란 개념이 학급 내 친구로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혼합 연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의 폭을 확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또래괴롭힘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또래관계만을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발달선상에 있는 아동은 또래집단 이외에도 가정환경변인 속의 부모, 형제와 관계를 맺고 있고, 학교환경변인, 학원환경변인 속의 교사와도 상호교류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아동의 포괄적인 사회관계망 속에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령 (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권연희 (199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애숙 (1993). 국민학교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공격 유형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예성 (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 (2001). 아동의 성격특성 및 자기노출과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연 (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선보 (200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희 (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순 (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양순 (1998).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미 (1990).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와 사회측정적 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 (1997).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하 (1996).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지영 (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샘이 (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집단별 관련 요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옥임 (2001). 또래따돌림에서 가해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영 (1995). 교우관계증진프로그램. 지도상담, 20, 81-105.
- 최진희 (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 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중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 Ferguson, L. I. (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 Psychology*, 25(2), 320-330.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ole, M., & Cole, S.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 NY: W. H. Freeman and Company.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Ellis, S., Rogoff, B., & Cromer, C. C. (1981). Age segreg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39-407.
- Green, F. P., & Schneider, F. W. (1974). Age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boys o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 248-251.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History, Theory, and Research*. NY: Springer Verlag.
- Hoover, J. H., & Hazler, R. J. (1991). Bullies and victims.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25, 212-219.
- Howe, C. (1983). Patter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4), 1041-1053.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ochenderfer, B. J., Ladd, G. W.,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Kruger, A. C. (1992). The effect of peer and adult-child transductive discussions on moral reas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38, 191-211.
- Lagerspetz, K. M. J., Bjorkvist, K., & Peltonen, T. (1988). Is indirect aggression typical of females?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veness in 11-to-12-year-old girls. *Aggressive Behavior*, 14, 403-414.
- Lane, D. A. (1989). Bullying in school: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0, 211-215.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Olweus, D. (1991). Bullying/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England: Black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 289-357.
- Rigby, K., & See, T. T.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 *Th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5), 615-627.
- Ruble, D. N., Balaban, T., & Cooper, J. (1981). Gender constancy and the effects of sex-typed televised toy commercials. *Child Development, 52*, 667-673.
- Sagotsky, G., & Lepper, M. R. (1982). Generalization of changes in children's preferences for easy or difficult goals induced through peer modeling. *Child Development, 53*, 372-375.
- See, P. T. (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243-248.
- Terry, R., & Coie, J. D. (1991). A comparison of methods for defining sociometric status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67-880.
- Whitney, I., & Smith, P. K. (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al Research, 35*(1), 3-25.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Youn-Jung Park

Ock-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was investigated with the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modified by Han(1996) and the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modified by Lim(1998). The subjects were 357 children of the fourth and sixth grades in four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s α , two-way ANOVAs, Pearson's correlation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s a function of gender and age. There were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nd peer victimization. And children's age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social support, punishment/leadership) explained 49.2%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Keywords: peer relationships, peer victimization, children's gender and age